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토요일—오후 집회)

메시지 9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의 완결 — 새 예루살렘

성경: 계 3:12, 21:2, 9-23

- I.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이다—계 21:10-11.
- A. 교회의 하락은 주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빗나가서 새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것을 그들의 목표로 취한 사실에 기인한다.
 - B. 우리는 오직 한 일,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들로 만드는 일만을 해야 한다—계 3:12.
- II. 새 예루살렘은 믿는 이들을 건축하는 일의 궁극적인 완결이며, 이 믿는 이들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된 이들이다. 따라서 믿는 이들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는 것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관이 있다—계 21:2, 3:12.
- A.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는 것과 관련된다—요 1:12-14, 14:20, 15:5상, 계 21:3, 10-11.
 -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이 함께 연합되고 조성되어 한 실체, 곧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계 21:3, 22.
 - C.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곧 신화(神化)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구성체이다—요 3:6, 히 2:11, 롬 12:2, 8:29-30.
 - 1. 우리가 신화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계 21:11.
 - 2. 믿는 이들의 신화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 있는 과정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이며 가장 높은 복음이다—롬 5:10, 계 3:12, 21:10-11.
 - D. 성경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만, 성경의 마지막에는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인 새 예루살렘, 곧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 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확대되고 우주적이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창 1:1, 계 21:3, 22, 22:17상.
- III. 오늘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과 그 결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에 의해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유일한 이 성에 대한 묘사에서 밝혀진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 되어야 한다—계 3:12, 21:2, 9-23.

- A. 새 예루살렘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일의 완결이다. 지방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성취하시기 위한 절차이다—고전 1:2, 12:12-13, 27, 계 21:2.
1. 그리스도의 몸은 그 존재와 기능을 위해 지방 교회들이 필요하다—행 8:1, 13:1.
 2. 지방 교회들은 많은 지방들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한 몸의 많은 표현들이다—계 1:4, 11.
 3.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지방 교회들을 보지만, 마지막 두 장에서는 오직 한 성만을 본다—계 1:11, 21:2.
 4. 주님의 갈망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는 전신(前身)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다—엡 4:16, 계 21:2.
- B. 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금등잔대이다—계 21:18하, 23.
1.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등잔대들의 궁극적인 완결이다—출 25:31-37, 왕상 7:49, 슥 4:2, 계 1:20, 21:18하, 23.
 2. 금등잔대들인 교회들은 모든 등잔대의 집합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1:20, 21:18하, 23.
 - a.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큰 표징이 있는데, 하나는 금등잔대들이고,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다—계 1:1, 12, 20, 21:2, 10-11.
 - b. 요한계시록은 등잔대들로 시작해서 등잔대로 마친다—계 1:20, 21:18하, 23.
 - c. 등잔대들은 교회들의 표징이고,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표징이다—계 21:2-3, 22.
 3. 금으로 된 산인 새 예루살렘은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등이신 어린양을 붙드는 우주적인 금등잔대이다—계 21:18하, 23, 22:1, 5.
- C.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벨엘이다—창 28:10-22, 계 21:3, 22.
1.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꿈인 벨엘에 대한 꿈,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었고(창 28:10-22),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이며(딤후 3:15)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선민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3, 22).
 - a.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고, 그 꿈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건축된 한 성을 얻으시는 것이었다—계 21:2.
 - b.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계 21:9-10.
 2. 그리스도는 벨엘에서의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구속받고 변화된 선민으로 조성된 한 집을 얻으심으로,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땅을 하늘에 연결하시어 이 둘을 영원토록 하나로 만들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요 1:51, 창 28:10-22.
 3.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고,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다—사 66:1-2, 고전 3:16, 시 90:1, 요 15:5상, 14:23.
 4. 영원 미래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들을 향해 높이 올려진 어떤 것으로서 온 우주 안에서 있을 것이고, 그 위에서 천사의 무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의 신성한 왕래, 신성한 교통을 위해 하늘을 땅에 가져오고 땅을 하늘에 연결할 것이다—고후 13:14.

D.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시온 산,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지성소이다—계 14:1-5, 21:1-3, 16, 히 12:22.

1. 교회 시대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이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계 14:1.

a.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며, 이기는 이들은 고봉(高峰)이자 가장 두드러진 곳인 시온이다—히 12:22, 계 14:1.

b. 이기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있다—롬 12:4-5, 엡 4:16, 계 3:12.

2.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일 것이다. 영원한 시온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지성소일 것이다—계 21:1-3, 16, 22.

E. 새 예루살렘은 참되고 완결된 솔라미, 곧 단체적인 솔라미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아 6:13, 계 21:2, 9-10, 22:17.

1. 솔로몬의 복사관인 놀라운 솔라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상징이다—아 6:13, 계 21:2.

2. 솔로몬의 배필로서 솔라미는 하와가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아담과 똑같았던 것처럼 솔로몬과 똑같이 되었다—창 2:20-23.

a.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그리스도께 어울리게 되었음을 상징한다—고후 3:18, 롬 8:29, 계 19:7, 21:2.

b. 그리스도의 많은 연인들이 결국에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복사관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곧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성취일 것이다.

IV.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의 큰 기쁨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의도를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건축하고 그분의 선민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조성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이다. 이 보배로운 기적적인 구조물의 궁극적인 완결이 곧 영원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위트니스 리의 비문(碑文).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신화 -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

이것은 우리를 신화의 문제로, 곧 믿는 이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끈다. 아타나시우스는 서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분(그리스도)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신화를 언급했다. ‘신화’라는 용어가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세기 동안 소수만이 감히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의 신화에 관해 가르쳤다.

나는 신화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가 믿는 이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임을 분명히 계시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즉 거듭났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아기 하나님들’이다. 신격은 유일하다.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분과 같다. 어느 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전체가 온전히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한편으로, 신약은 신격이 유일하다는 것과 홀로 신격을 지니신 유일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함을 계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분의 신격은 결코 소유할 수 없음을 계시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5장, 194-195쪽)*

새 예루살렘 -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된 신성과 인성의 구성체

성경의 신성한 계시의 결론은 하나의 건축물,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 건축물은 신성과 인성이 섞이고 연합된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증명된다. 3절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언급하며, 22절은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것이며,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양은 구속된 성도들이 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라는 것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이 건축물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문들은 진주들로서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계 21:12), 열두 기초석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14절). 이것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그 본질과 중심과 전부가 되시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임을 나타낸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된 신성과 인성의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단체적인 한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문제이다. 이 둘, 곧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함께 건축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과 완결이다. 우리 모두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장, 229-230쪽)*

상자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러한 요점을 주의하지 않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실지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된다. 이것은 비록 성경 그 자체는 참될지라도, 우리에게 이해된 성경이 공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자가 있다고 하자.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상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상자’처럼 관심하지만, 이 상자의 내용인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고 감상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다이아

몬드'를 합당하게 감상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든 '다이아몬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이다.

오늘날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성경의 중점을 소홀히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잘못 비난한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요점의 한 방면, 곧 하나님께서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믿지만, 다른 방면, 곧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1장, 235-236쪽)

빛과 등

그 성은 해나 달이 필요 없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취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천년왕국 안에서 해와 달의 빛은 강화될 것이다(사 30:26).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와 달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있을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밝게 빛을 발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임

새 예루살렘 안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계 22:5상).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21:25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낮과 밤의 구분이 있을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을 것이다. 성 밖에는 밤이 있을 것이지만 성 안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에는 영원하고도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한 생명의 빛으로 그 성을 밝게 하며, 어린양은 신성한 빛을 영광으로서 투명한 성을 통해 비추어내는 등이심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으며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다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성의 등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속에 가지시고, 신성한 빛의 표현,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게 하실 것이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취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계 21:23) 표현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실체와 본질과 요소인 하나님의 영광은 등이신 어린양 안에서 빛을 비추며, 이 빛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빛이다. 표현되신 하나님의 영광, 혹은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은 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빛이시고, 이 빛은 가장 귀한 벽옥 같은 새 예루살렘의 벽옥 성벽을 통해 빛나며, 이 벽옥 성벽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다(11절).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양이 빛 비춤과 함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최종적이고 완결된 단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등이신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하나의 빛이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내용이시며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빛을 담고 계신 분, 곧 빛의 표현이시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추시며, 이 빛이 성 전체를 밝게 비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성한 분배하심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빛의 빛남은 사실상 믿는 이들 안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은 등을 필요로 하신다. 등이신 어린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빛남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등이신 구속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신성한 빛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우리를 밝게 비춘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비추심은 죽이는 것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추심은 일종의 우리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된다. 신성한 빛은 구속자이신 어린양을 통해 비추기 때문에 사랑스러우며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 등이신 어린양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춤이 된다. *(신약의 결론, 새 예루살렘, 78-80쪽)*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일 뿐 아니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이기도 하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만족을 위하는 배우자에 비유하신다(사 54:6, 렘 3:1, 겔 16:8, 호 2:19, 고후 11:2, 엡 5:31-32).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한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과 10절은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신부는 주로 결혼 날을 위해 있는 반면, 아내는 전 생애를 위해 있다.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도 같은 천년 동안(벧후 3:8) 천년왕국에서 신부일 것이며, 그런 다음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내가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신부는 이기는 성도들만을 포함할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내는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포함할 것이다(계 21:7).

하와가 아담과 하나이듯이 새 예루살렘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일 것이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건축되었으며, 그 후 하와는 아담에게 되돌아가 아담과 한 육체가 된다. 곧 생명과 본성에서 아담과 하나가 된다(창 2:21-24, 엡 5:25-27, 29-32).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하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의 구속자와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성은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넣어질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생명과 본성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인 교회

교회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말에 계시되어 있으며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 아담에게로 돌아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이 된다는 사실은(고전 6:17) 위대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은 커다란 비밀이다.

천년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는 아내를 소유하실 것이지만, 천년왕국 안에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를 소유하실 것이다(계 19:7-8, 21:2).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이러한 결혼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린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구속과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성령의 계속적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표는 이 시대 끝에 완결될 것이다. 그럴 때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가 예비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그분의 아내’는 교회(엡 5:24-25, 31-32),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를 말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는 천년왕국 동안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신부, 곧 아내는 천년왕국 후 영원토록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후반절은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한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이기는 이들의 성숙과 그들이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로 함께 건축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부로 함께 건축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깨끗한’이란 말은 본성을 말하며 ‘빛나고’라는 말은 표현을 말한다. 의로운 행실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은 의(곧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의 의는 이기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관적인 의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낸 그리스도이다.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로 구성됨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로 구성될 것이다. 천년왕국 후에 모든 성도는 온전하게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라는 놀라운 실체로 함께 구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의 완결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구성체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배필인 그분의 신부, 곧 아내이다.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분의 배필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의 풍성에 참여함으로써 준비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가 될 것임을 가리킨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총체이신 그 영은 완전히 성숙하여 신부가 된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사람들의 완결은 하나가 될 것이며,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가 될 것이다. *(신약의 결론, 새 예루살렘, 45-48쪽)*